

# 사무직 근로자의 음주 실태 조사연구

김인홍

동국대학교 간호학과

## 1. 연구목적

본 연구에서는 사무직 근로자의 음주 정도를 조사하고 이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직장인의 음주 문제 해결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.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대상자의 음주 관련 정도와 인구 사회학적 및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음주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.

## 2. 연구방법

본 연구는 P시에 거주하는 사무직 근로자 16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.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05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행되었으며, 음주 정도는 총 10문항, 4점 척도인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(AUDIT)을 사용하였다. 이 도구는 총점이 8점 이상일 경우 보다 전문적인 진단과 평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류되며, 본 연구에서 측정된 척도의 신뢰도는 .89로 나타났다. 수집된 자료는 SPSS 12.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, 백분율, 평균, 표준편차, t-test, 일원 배치 분산분석 및 Scheff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.

## 3. 연구결과

조사 대상자들의 100%가 평생 음주 경험이 있고, 술을 마신지 1개월이 안된 사람 즉, 최근에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전체의 85.0%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. 직장인들이 주로 마시는 주종은 소주가 62.4%로 가장 많고, 1회 평균 음주량은 즐겨 마시는 주종으로 「1잔 이상에서 5잔 미만」이 53.8%로 가장 많고, 평균 5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 폭음으로 정의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전체 직장인의 46.3%가 술을 마실 때마다 폭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한편 주로 함께 술을 마시는 대상으로는 직장 동료가 67.5%로 가장 많았으며, 직장인들은 대체로 술을 마시면 1차에서 술을 그만 마시는 사람은 전체의 42.5%이었으며, 2차로 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 전체의 55.0%로 나타났고 3차 이상을 가는 사람들도 2.5%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. 조사 대상자들에게 AUDIT의 절단점을 8점으로 구분하여 적용해 보았을 때 문제성 음주자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조사 대상자의 57.5%에 이르렀으며 음주와 관련된 교육 경험은 81.2%에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조사 대상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AUDIT 도구로 조사한 음주 정도를 살펴보면,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사후검증 한 결과 20대보다는 30대가 음주 점수가 더 높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, 20대보다는 40대 이상에서 음주 점수가 더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. 즉, 20대보다는 30대, 20대보다는 40대가 더 많은 음주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. 그리고 교육 정도에 따라 음주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사후검증 한 결과 전문대졸보다는 대졸이상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이며 유의한 차이를 보

였다.

조사 대상자들의 직무 경험 관련 특성에 따른 AUDIT 도구로 조사 한 음주 정도를 살펴보면, 총 직장 근무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사후검증 한 결과 「5년 이하」 보다는 「1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」 인 경우 음주정도가 더 높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, 또한 「5년 이하보다는 16년 이상」 에서 음주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 총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리고 직위별 음주 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, 사후검증 한 결과 사원보다는 과장 및 차장급이 음주정도가 더 높게 유의한 차이를 보여, 사원보다는 과장 및 차장급이 더 많은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#### 4. 결론 및 제언

본 연구에서 폭음, 2차 음주형태 그리고 문제 음주자가 과반수에 가까워 우리나라 직장인의 음주는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다. 그리고 연령, 교육, 근무경력 및 직위가 많고 높을수록 더 많은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인의 음주 특징, 행태 및 영향요인을 반영한 다양한 직장 알코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.